

몬트레이 한인 천주교회



303 Hillcrest Ave. Marina, CA93933

연중 제 2 주일 2023 년 1 월 15 일 (가해) 3 호

- ◆ 주임신부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831) 220-1209
- ◆ 사목회장 정영순 크리스티나 (831) 737-0081
- ◆ 미사: 주일 미사 오후 4 시, 목요 미사 오후 6 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 분 전
- ◆ 성체 강복: 매달 첫째 목요 미사 후 ◆ 봉성체: 매달 셋째주 금요일
- ◆ 레지오 모임: 그리스도의 모후 목요일 4 시, 바다의 별 목요일 4 시반
- ◆ 성령기도회: 목요 미사 후



2023. 1. 8 이영기 제노 형제님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 49,3.5-6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독서 1 코린 1,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29-34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입당 34

봉헌 511

성체 166

파견 29

† 전례 봉사

| | |
|-----|----------------------------|
| 복 사 | 강석우 안드레아, 이수지 데레사 |
| 독 서 | 김병규 스테파노 (1), 신순선 카타리나 (2) |
| 해 설 | 명정옥 마리오셉 |
| 봉 헌 | 김행자 안나, 임미카엘라 |

미사 참례자수

목요 미사 (1/5) 20 명, 주일 미사 (1/8) 44 명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1/8): \$264

교무금: 김상희 (1, 2), 오숙자 (1~6)


사제관 건립 기금: 총액 \$89,284.32

기도해 주세요



김재희 헬렌, 송정옥 프란치스카, 알리샤 라우시, 양화자 소화 데레사
전경순 쟈마, 정영숙 레지나

알려드립니다

-  몬트레이 공동체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담아 주임신부님 부친 이영기 제노 형제님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냈습니다.
함께 연도해주신 많은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임신부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주일 미사는 산호세 한인성당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요 미사는 없겠습니다.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 1월 19일(목) 오후 4시에 일치의 모후 꾸리아 평의회가 열립니다.
- 1월 22일(일) 설 미사가 있습니다. 위령미사 봉헌하실 분은 전례위원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연중 시기

주님 세례 축일(1월 9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 시기부터 시작되는 한 해의 전례주년에는 연중 시기가 두 번 있는데, 성탄 시기가 끝난 다음과 부활 시기가 끝난 뒤입니다. 연중 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억하며 경축합니다.



묵상 나눔 (정재훈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별빛 바라보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별을 보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비쳐줄 것이고, 우리는 그 별빛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오롯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하느님께서 분명 잊지 않고 갠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별이 비추는 빛이 너무나 버거워서 잠깐 다른 길을 선택해서 죽음과 어둠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슬픕니다. 다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오늘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곧 사랑의 눈,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눈이 더이상 감겨지지 않도록, 그 눈을 계속 뜨고 내가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말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느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참고 기다려주려고, 그 방법을 배우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빛 속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 가는 것까지도 경쟁하려고,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가겠지 하고 경쟁하기보다, 성체를 나눠 모시는 식구로서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야 주변에 우리가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온갖 악의 유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하고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